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아름답고 소중한 삶

벌써 2018년도 거의 다 지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은 참으로 빠른 것 같다. 헛터도 없다. 쓸쓸함마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아무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것' 말이다.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것 또한 3가지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 별런트 박해미 씨 남편이 20살 및 33살짜리 뮤지컬 배우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갈 때만 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배우 두 사람은 죽고 말았다.

만약 사전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절대로 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다. 그들이 탔던 차는 무려 1억5천만 원이나 되는 크라이슬러 닷지 차량이었다.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 희귀차량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이미 죽어버린 것을, 이게 바로 인생이다.

때문에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를 즐겨야 한다. 이별관리도 해야 한다. 아름다운 삶과 죽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

가장 아름다운 삶과 죽음은 준비하고 화해하는 것일 것이다. 멋있는 삶과 죽음은 존경받는 죽음일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안타깝고 한심한 죽음만은 맞이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대

차이, 성격 차이, 성별 차이,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의 차이 등을 두 번째로는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건강, 외모)변화, 관계적(자녀, 부모, 배우자, 형제, 고부, 사위)변화, 정서적 변화, 사회적 변화, 역할적 변화, 호칭의 변화 등 말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이런 상황이 곧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시바타도요 할머니는 90세가 넘어서 아들의 권유로 시 창작에 도전했다. 결국 98세에 등단하게 되었다. 대단한 용기와 엄청난 집념이었다. 101세에 사망한 뒤 장례비용으로 시집 '약해지자

마'를 출간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약해지자마'라는 시를 보보자. '있잖아! /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 꿈은 평등하게 꿀수 있는 거야 /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 살아있어 좋아 / 너도 약해지자마.'

우린 언제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셈이다.

박우현 시인의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도 보보자. '이십대에는 / 서른이 두려웠다. /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심겁게 난 살아있었다. / 마흔이 되니 /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 삼십 때에는 / 마흔이 무서웠다. /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살아 멀쩡했다. /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 예순이 되면 쉰이 그리리다. /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리리다. / 죽을 앞에서 / 모든 그때는 질정이다. /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이들 두 사람의 시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것도

社說

구급시설 과밀수용 해소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구급소 등 구급시설에서 수용자를 정원 이상으로 채워넣는 과밀 수용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서 인권을 침해하는 훼손"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2개 구급시설 과밀수용 실태 직권 조사를 실시한 뒤 법무부장관 등에게 구급시설 신축·증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구급시설 평균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해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

대도시 주변은 전체 평균보다 8.8%포인트 높은 124.3%의 수용률을 보였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산구치소의 여성 수용률은 185.6%에 육박했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총 8934건으로 연 평균 1787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최근 4년간 평균보다 35% 증가한 2249건이 접수됐다. 과밀수용 관련 진정은 총 205건이었다. 인권위는 "구급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권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구급시설 과밀수용 실태 인권위 제공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급된 미결 수용자가 늘어난 것도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시설 수용자는 26% 증가해 지난해에는 미결구급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미결구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四 大 五 常 四 大 五 常 四 大 五 常 四 大 五 常

▷ 뜻: 네 가지 큰 것과 다섯 가지 떼뜻함이 있으니, 즉 사대(四大)는 천지군천(天地君親)이요, 오상(五常)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전기장판 적정온도 사용으로 화재와 화상 조심하세요

겨울철은 급격한 이상기온으로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등 화재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여름과 가을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본격적인 추위로 전기장판 사용이 늘면서 과열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6개월(2015.1.~2018.6.)간 전기장판 과 관련하여 접수된 위해 신고 건수는 총 2,411건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위해 건수는 지난해 520건 보다 많은

524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건수는 기온이 낮아지는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월까지 절반(53%)이 넘게 발생하였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과 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온수매트 913건(37.9%)과 전기방석(31건, 1.3%) 순이다

사고 유형은 10건 중 6건이 화재와 과열·폭발이었고, 위해 증상으로는 장시간 피부 접촉 등으로 인한 화상이 667건(88%) 발생하였다

손상 부위는 전기장판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와 다리·발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안전한 전기장판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장판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접혀진 채로 오래 사용하면 내부 전선이 얽히거나 손상되어 불이 나기 쉽다. 그 동안 보관되었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장판 등 열을 내는 전기 제품을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고온의 접촉으로만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낮은 온도로도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접촉되면 저온화상을 입기 쉽

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반팔과 반바지 보다는 두께가 있는 긴 옷을 입고, 담요 등을 깔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피한다

특히, 리튬스 재질의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동글게 말아서 보관하도록 한다

겨울철 추위를 녹여주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고온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외출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상에 주의하도록 하자.

이선호 / 나주소방서 소방장

湖南新聞 本 社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